

퇴계의 지각 이론과 자연미 인식의 감성적 계기

김태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시가미학 전공
suri4w@hanmail.net

- I. 서론
- II. 지각의 본질과 대상
- III. 지각과 미적 인식
- IV. 결론

I. 서론

우리의 마음은 형상이 따로 없이 텅 빈 기(氣)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로써 느끼는 뿐만 아니라 움직이고 생각하는 온갖 리(理)를 갖추어 지닌다. 본질과 양상이 이처럼 텅 비어 있는 듯하되 오히려 가득 찬 이것은 곧 마음의 본체이고, 여기서 비롯하는 모든 지각(知覺)과 감정(感情)과 사려(思慮)는 곧 마음의 기능이다. 이러한 마음은 사람만 아니라 짐승도 가지며, 만물이 또한 저마다 그 나름의 마음을 가진다.¹⁾ 사람의 마음에 비길 만한 지각이 없을 뿐이다.

일찍이 회암(晦庵)은 사람의 마음이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의 다름을 보이는 까닭을 특히 지각이 다른 데서 찾았다.²⁾ 이것은 지각을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의 관건으로 삼아 중시하는 견해다. 격암(格菴)은 이러한 지각을 가리켜 ‘지(知)는 소당연(所當然)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각(覺)은 소이연(所以然)을 깨닫는 것이다.’³⁾라고 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사람의 지각은 그 기능이 의리(義理)의 당연(當然)과 소연(所然)을 파악하는 데까지 이른다.

그런데 율곡(栗谷)은 격암의 주석을 몹시 부당한 것으로 여기던 적이 있었다. 격암의 주석은 지각의 범위를 그 상한에 있어서 매우 높게 규정하는 바였다. 율곡은 바로 여기에 불만을 품었고, 마침내 퇴계(退溪)의 처소로 보내는 문목에 적기를 ‘평범한 사람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각을 가지고 있거늘, 이것이 어찌 소당연을 알아차리고 소이연을 깨닫는 것이라?’⁴⁾라고 하였다. 반면에 퇴계는 이것을 단호히 배격하는 답안을 보냈다.

혈기(血氣)를 지니는 것들은 모두 지각(知覺)을 지닌다. 그러나 짐승의 치우치고 막힌 지각이 어찌 사람의 가장 영민한 지각과 같으랴? 하물며 여기서 지각을 말함은,

- 1) 朱熹, 『朱子語類』(四庫全書) 4: 8b. 「性理一」: “天下之物, 至微至細者, 亦皆有心, 只是有無知覺處爾. 且如一草一木, 向陽處便生, 向陰處便憔悴, 他有箇好惡在裏.”
- 2) 朱熹, 『中庸章句大全』(四庫全書) 上: 2a. 「中庸章句序」: “心之虛靈知覺一而已矣, 而以爲有人心道心之異者, 則以其或生於形氣之私, 或原於性命之正, 而所以爲知覺者不同.”
- 3) 朱熹, 『中庸章句大全』(四庫全書) 上: 2a. 「中庸章句序」附註: “知是識其所當然, 覺是悟其所以然.”
- 4)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14: 28b. 「答李叔獻問目」原註: “今衆人至於鳥獸, 皆有知覺, 此豈識其所當然, 悟其所以然者耶.”

[예로부터] 마음[心]을 잘 간수하고 부러서 쓰는 법도를 전함에 있어서 [인심(人心)은 위태(危殆)하고, [도심(道心)은 미묘(微妙)하니, [중도(中道)를 얻고자 할진댄 정일(精一)하라.'라고 했었던 데 말미암아 이 두 글자를 허령(虛靈)과 아울러 말하고, 이로써 사람의 마음이 갖춘 체(體) - 본체 - 와 용(用) - 기능 - 의 오묘함을 밝히는 바였다.⁵⁾

율곡의 견해로 말하면, 지각은 모든 사람이 품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들 가지는 뿐만 아니라 하물며 짐승도 다들 가지는 바로서 다만 의식(意識)이 깨어 있어 촘고 더운 줄을 알아차리고 배고픔을 깨닫는 정도의 기능에 속한다. 이것은 지각을 감각(感覺)의 범위로 제한하는 견해다. 율곡은 당시에 사람의 지각과 짐승의 지각을 거의 구별하지 않는 관점에 있었다. 사계(沙溪)도 이것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⁶⁾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의리의 당연과 소연에 대한 인식은 사려의 영역에 가서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퇴계의 견해로 말하면, 지각은 이른바 허령(虛靈)을 체(體)로 하는 마음의 용(用)으로서 단순히 감각에 그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리의 당연과 소연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에 속한다. 기질(氣質)에 막히고 욕구(欲求)에 가리는 경우는 있어도, 사람의 지각은 것처럼 의리의 당연과 소연을 파악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을 지니는 데서 짐승의 지각과 다르다. 사람의 지각이 비록 어질고 모자란 따위의 차이를 빚기는 하지만, 이것은 마침내 사람의 지각이 지니는 본질적 능력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평범한 사람의 지각이 성현(聖賢)과 다른 까닭은 곧 기(氣)가 가리고 욕(欲)이 어둡게 하여 스스로 잃은 데 있는 것이다. 또 어찌 이것을 들어 사람의 마음[心]의 알아차릴 수 없음과 깨달을 수 없음을 의심해야 하는가?⁷⁾

의리의 당연과 소연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이지(理智)의 추리력과 판단력을 두루 주재하는 사려의 소관일 듯한데, 퇴계의 견해는

5)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14: 28a-28b. 「答李叔獻問目」: “凡有血氣者, 固皆有知覺. 然鳥獸偏塞之知覺, 豈同於吾人最靈之知覺乎. 況此說知覺, 實因傳心之法, 危微精一之義, 而以此二字, 并虛靈言之, 發明人心體用之妙.”

6) 金榦, 『厚齋先生集』(文集叢刊) 31: 3a-3b. 「筭記·中庸」: “沙溪曰, 知其所當然, 覺其所由然, 本出孟子註. [...] 若此謂知覺則只是不昏塞之意, 故朱子嘗以知寒覺煖爲訓. 趙說恐非序文本意.”

7)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14: 28a-28b. 「答李叔獻問目」: “若夫衆人知覺, 所以異於聖賢者, 乃氣拘欲昏而自失之, 又豈當緣此而疑人心之不能識與悟耶.”

특히 이지(李致)의 판단력을 오히려 지각(知覺)에 배당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부른다. 퇴계가 말하는 사람의 지각은 감각이 파악하는 대상의 범위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 사물의 법칙을 파악하는 데까지 이르는 판단력의 하나다. 이것을 흔히 직관(直觀) - 직각(直覺) - 이라고 이른다. 그러면 이러한 지각은 특히 어떠한 원리와 근거를 통하여 성립되는 것인가?

직관은 무릇 사물의 형상을 접촉하는 순간에 곧장 그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한다. 직관은 우리의 모든 심미 판단의 근본을 이룬다. 따라서 이러한 직관이 실제로 우리의 지각에 배속되어 있을 양이면, 우리는 현실미의 주요 범주를 이루는 온갖 사물의 미적 규율을 사려에 앞서 이미 지각의 단계에서 이내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미(自然美)와 같은 미적 존재는 특히 어떠한 원리와 계기를 통하여 파악되는 것인가?

퇴계의 지각 이론에 대한 종래의 연구는 사례가 매우 적었다. 그러나 모두 다 중요한 성과를 보였다. 예컨대 퇴계가 매사에 대하여 직관과 감정 체험을 궁리(窮理)의 방법으로 강조한 이유와 그 의의를 고찰한 연구가 있었고,⁸⁾ 마음의 본질에 관한 퇴계의 여러 논변을 좇아서 지각과 의식의 성립 과정에 따른 공부(工夫)의 문제를 고찰한 연구가 있었다.⁹⁾ 이밖에 퇴계의 지각 이론이 특히 사칠(四七) 논쟁을 통하여 확립된 사실과 그것이 율곡의 견해에 대하여 가지는 차이를 조명한 연구도 있었다.¹⁰⁾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지각이 관여하는 바의 도덕적 감정과 의리의 실천에 고찰의 중점을 두었고, 지각에 의거한 심미 판단의 문제나 자연미에 대한 감성적 인식의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본고는 퇴계의 지각 이론과 문학 작품을 통하여 지각의 본질과 대상의 문제를 고찰하고 아울러 지각과 미적 인식의 문제를 고찰하는 것으로써 작성의 목표를 삼는다. 지각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와 근거, 지각에

8) 蒙培元, 「論李退溪的情感哲學」, 『退溪學報』 제58집(1988), 83-92쪽; 徐遠和, 「略論李退溪的直覺觀」, 『退溪學報』 제62집(1989), 115-123쪽; 李愛熙, 「退溪哲學에 있어서 知의 問題」, 『退溪學報』 제74집(1992), 7-19쪽.

9) 文석윤, 「退溪의 ‘未發’論集」, 『退溪學報』 제114집(2003), 1-44쪽; 李承煥, 「退溪 未發說 釐清」, 『退溪學報』 제116집(2004), 67-106쪽.

10) 金우형, 「이황의 마음 이론에서 ‘지각(知覺)’과 ‘의(意)」,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2호(2005), 187-208쪽; 文석윤, 「退溪集 所載 栗谷 李珣 問目 자료에 관하여」, 『退溪學報』 제122집(2007), 127-131쪽.

말미암아 생기는 감정과 사려 및 사물의 의의 등은 지각의 본질과 대상에 따른 고찰에서 다룬다. 심미 지각의 원리와 방법, 자연미의 본질과 근원 등은 지각과 미적 인식에 따른 고찰에서 다룬다.

II. 지각의 본질과 대상

1. 지각의 원리와 근거

지각의 개념에 관한 격암의 주석은 회암의 정의를 반복하는 바였고, 회암의 정의는 또한 명도(明道)의 견해에 의거하는 바였다.¹¹⁾ 이들은 모두 의리의 당연과 소연을 파악하는 능력이 사려에 앞서 이미 지각에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 '지각하면 의리(義理)가 곧 여기에 있다.'라고 하였던 회암의 발언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¹²⁾ 퇴계가 율곡의 견해를 단호히 배격하던 배경에는 종래의 이러한 합의가 중요한 전거로 있었다. 요컨대 지각은 성리학 연구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의 관건으로 삼아 중시하던 바였다.

리(理)와 기(氣)가 한데 모여서 마음(心)을 이루고 허령(虛靈)과 지각(知覺)의 오묘함을 저절로 지닌다. 정(靜)하여 중리(衆理)를 구비(具備)하는 것은 성(性)이나, 이러한 성을 한껏 담아서 모두 싣는 것은 마음이다. 동(動)하여 만사(萬事)를 응대(應對)하는 것은 정(情)이나, 이러한 정을 베풀어 쓰는 것은 또한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성과 정을 거느린다.'라고 하였다.¹³⁾

퇴계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마음은 리(理)와 기(氣)의 합체로서 허령과 지각의 오묘함을 저절로 지닌다.'라고 하였다. 허령은 곧 마음의 본체를 형용한 것이다. 지각은 곧 마음의 기능을 대표한 것이다. 마음의 본체는 성(性)을 한껏 담아서 싣은 정(靜)의 상태다. 마음의 기능은 정(情)

11) 朱熹, 『孟子集註大全』(四庫全書) 9: 25b. 「萬章章句上」註: “知謂識其事之所當然, 覺謂悟其理之所以然.”; 楊時, 『二程粹言』(四庫全書) 上: 17b. 「論道篇」: “知者知此事也, 覺者覺此理也.”

12) 朱熹, 『朱子語類』(四庫全書) 16: 55b. 「大學三」: “才知覺, 義理便在此. 才昏, 便不見了.”

13)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18: 12b-13a. 「答奇明彥」: “理氣合而爲心, 自然有虛靈知覺之妙. 靜而具衆理, 性也, 而盛貯該載此性者, 心也. 動而應萬事, 情也, 而敷施發用此情者, 亦心也. 故曰心統性情.”

을 베풀어 쓰는 동(動)의 상태다. 여기서 동의 상태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사려가 그 내용을 이룬다. 그리고 그 계기는 바야흐로 다가오는 사물을 맨 처음 응접하는 바의 지각에 말미암아 생긴다.¹⁴⁾ 지각을 중시할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지각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

바람이 오면 대가 우니 둘 사이가 빈 것이 아니나,
 바람이 자면 소리도 잦아져 고요 속에 잠긴다.
 마침내 어느 것에 말미암아 소리가 나는가?
 바람이 다시 대를 울리고 대가 또 바람을 울린다.¹⁵⁾

지각은 우리의 마음이 사물과 접촉하는 가운데 그것을 비추어 내는 작용과 그 결과를 말한다. 사물의 다가옴과 마음의 맞이함이 한데 모여서 지각을 이루고, 이러한 지각에 말미암아 모든 감정과 사려가 생기니, 이것을 바람과 대가 한데 스쳐서 문득 소리를 빚는 현상에 비유할 만하다. 그런데, 대바람 소리와 솔바람 소리가 서로 다른 데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경우든 소리가 마지막 돌아갈 자리는 자못 뚜렷해 보여도, 소리가 처음 울리는 자리는 수월히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퇴계는 바로 그 소리가 말미암는 바에 의문을 던졌다.

퇴계의 대답은 '바람이 다시 대를 울리고 대가 또 바람을 울린다.'라는 구절에 담겼다. 지각은 마음이 홀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며, 사물이 홀로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지각은 다가오는 사물과 맞이하는 마음이 선후(先後)와 인과(因果)를 가릴 수 없이 서로 열어 젖혀서 하나로 통하는 자연적 집중을 이룬다. 따라서 적어도 지각을 일으키는 찰나에 놓였던 우리의 마음은 도저히 이른바 자아(自我)나 사유(私有)를 세우지 못한다. 그것은 다만 하나의 허령한 공기(公器)일 뿐이다. 퇴계가 허령과 지각을 필연적 관계로 함께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등불은 기름을 얻어서 매우 많은 불꽃을 지니게 되는 까닭에 어둠을 밝힐 수 있고, 거울은 수운을 얻어서 이와 같은 맑음을 지니는 까닭에 곱고 미운 것을 비출

14) 柳成龍, 『退溪先生年譜』(文集叢刊) 2: 19a. 「先生六十九歲」三月 附註: “上又問, 圖內虛靈二字在上, 而知覺在下, 何也. 對曰, 虛靈, 心之本體, 知覺, 乃所以應接事物者也. 故如此矣.”

15) 李滉, 『退溪先生文集·別集』(文集叢刊) 1: 55b. 「次韻仲舉詠竹·風竹」: “風來竹嘯兩非空, 風定聲歸沉寥中. 畢竟有聲緣底物, 風還鳴竹竹鳴風.”

수 있고, [사람인 리(理)와 기(氣)가 한데 모여서 마음(心)을 이루고 이와 같은 허령(虛靈)과 불측(不測)을 지니는 까닭에 사물(事物)이 바야흐로 다가오면 곧 지각(知覺)할 수 있다.¹⁶⁾

퇴계는 지각이 가능한 이유를 사람의 마음이 본디 허령한 데서 찾았다. 허령은 공허(空虛)와 영활(靈活)을 한데 아우른 말이다. 공허는 그 도량이 더없이 막대함을 뜻한다. 이것은 천지의 온갖 사물을 모두 다 비추어 낼 만큼 순전히 맑은 기를 지니는 마음의 정지상(靜止相)이다. 도량의 더없이 막대한 것이 여기서 나온다. 영활은 그 기능이 더없이 활발함을 뜻한다. 이것은 천지의 온갖 사물을 모두 다 이루어 낼 만큼 완전히 갖춘 리를 지니는 마음의 구비상(具備相)이다.¹⁷⁾ 기능의 더없이 활발한 것이 여기서 나온다. 허령한 마음은 그 정체를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렵다.

사람의 마음은 그처럼 순전히 맑은 기와 완전히 갖춘 리의 총화이기 때문에 허령하고, 허령하기 때문에 천지의 온갖 사물을 다가오는 대로 낱낱 남김이 없이 모두 지각하는 기능을 가진다. 순전히 맑은 기는 지각하는 바탕을 이루고, 완전히 갖춘 리는 지각하는 까닭을 이룬다. 예컨대 거울은 조금도 일그러진 자리가 없도록 완전한 수평을 이루는 원리와 조금도 흐리거나 거친 자리가 없도록 순전한 판면을 이루는 재질의 총화이기 때문에 명백한 평면이고, 명백한 평면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사물의 진상을 고스란히 다 비추는 것이다. 순전한 판면은 비추는 바탕이고, 완전한 수평은 비추는 까닭이다.

허령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지각하는 바탕은 순전히 맑은 기이고, 지각하는 까닭은 완전히 갖춘 리이다. 퇴계의 견해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 회암은 이것을 말하여 ‘지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마음의 리이고, 지각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기이다.’라고 하였고, 문봉(文峰)은 또한 ‘지각하는 것은 기의 영활이고, 영활하게 하는 것은 리이다.’라고 하였다.¹⁸⁾ 퇴계의 견해는 소략한 이것을 자세하고 정밀하게 설명하는

16)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25: 25b. 「答鄭子中別紙」: “火得脂膏 而有許多光焰 故能燭破幽闇 鑑得水銀 而有如許精明 故能照見妍媸 理氣合而爲心 有如許虛靈不測 故事物纔來 便能知覺.”

17) 김태환, 「퇴계의 체용(體用) 제1의와 리(理)의 적감(寂感)」, 『철학논집』 제18집(2009), 190-197쪽 참조.

18) 朱熹, 『朱子語類』(四庫全書) 5: 6a. 「性理二」: “所覺者, 心之理也, 能覺者, 氣之靈也.”; 鄭惟一, 『文峯先生文集』(文集叢刊) 3: 21a. 「上退溪先生問目」: “知覺者, 氣之靈也, 所以靈者, 理也.”

바였다. 그러면 마음의 이러한 지각은 실제로 무엇을 파악하는 것인가?

마음(心)은 다만 하나이지만, 지각(知覺)이 이목(耳目)의 욕구(欲求)를 좇아서 나오면 곧 인심(人心)이고, 지각이 의리(義理)를 좇아서 나오면 곧 도심(道心)이다. 인심은 위태(危殆)하여 함닉(陷溺)하기 쉬우며, 도심은 미묘(微妙)하여 현저(顯著)하기 어렵다.¹⁹⁾

지각은 의리의 당연과 소연을 파악하는 바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지각의 정수를 가리킨 것일 뿐이지, 이로써 지각의 실상과 그 다양한 내용을 모두 아울러 가리킨 것은 아니다. 회암의 논변에 따르면, 지각은 크게 형기(形氣)의 욕구를 좇아서 나오는 것과 성명(性命)의 욕구를 좇아서 나오는 것이 있으니, 전자는 신상의 이해를 파악하는 바로서 인심을 이루고, 후자는 사물의 의리를 파악하는 바로서 도심을 이룬다. 그러니 무릇 욕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물이 곧 지각의 내용인 셈이다.

지각은 욕구의 대상을 파악하는 기제다. 욕구는 보충과 배제의 방식을 통하여 생리(生理)의 적부(適否)를 요구하는 마음의 작용과 그 상태다. 우리의 모든 지각은 이러한 욕구를 근거로 삼는다. 형기의 욕구는 자신과 타자를 서로 다른 개체로 세운다. 이것은 목숨을 간직하는 욕구다. 성명의 욕구는 사람과 짐승을 서로 다른 사물로 세운다. 이것은 사람을 간직하는 욕구다. 그러나 반드시 목숨이면서 반드시 사람이라야 비로소 사람으로서 개체인 하나의 사물을 이룬다. 그러니 전자와 후자가 본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나누어 말하면, 인심(人心)은 확실히 형기(形氣)에서 생기고, 도심(道心)은 확실히 성명(性命)에서 생기되, 합해서 말하면, 도심은 인심의 사이에 섞여서 나오니, 실상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드러내는 까닭에 뚜렷이 ‘두 가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²⁰⁾

성명이 반드시 형기에 있듯이, 성명의 욕구도 언제나 형기의 욕구를 타고 나온다. 이것은 곧 사물의 의리를 파악하는 지각과 신상의 이해를 파악하는 지각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뜻한다. 따라서 회암의 논변은 마땅히 ‘도심은 인심의 사이에 섞여서 나온다.’는 퇴계의 명제를

19) 朱熹, 『朱子語類』(四庫全書) 78: 52b. 「尙書一」: “只是這一箇心, 知覺從耳目之欲上去, 便是人心, 知覺從義理上去, 便是道心. 人心則危而易陷, 道心則微而難著.”

20)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39: 24a. 「答洪胖」: “分而言之, 人心固生於形氣, 道心固原於性命, 合而言之, 道心雜出於人心之間, 實相資相發, 而不可謂判然爲二物也.”

통해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도심은 결코 인심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할 만하다. 지각과 감정과 사려를 선후·인과의 관계로 분별한 회암의 예시다. 퇴계는 이것을 평하여 ‘회두를 달리 세울 것이 없을 만큼 명백하고 적당하다.’라고 하였다.²¹⁾

우물에 빠지는 철부지 어린아이를 문득 보는 이것은 마음(心)의 느낌(感)이다. 반드시 놀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이것은 정(情)의 생김(動)이다. 교분을 맺고자 건지고, 명예를 얻고자 건지고, [인정이 없다]는 소문이 듣기 싫어서 건지고 하는 따위는 마음이 주재(主宰)하지 못하여 정이 그 바름을 잃은 것이다.²²⁾

여기서 이른바 ‘마음(心)의 느낌’은 곧 지각을 가리킨 것이고, ‘정(情)의 생김’은 곧 감정을 가리킨 것이다. 그리고 ‘교분을 맺고자’와 그 이하는 곧 의(意)가 나뉘어 실천이 달라진 것이니, 마음의 여러 경향에 속하는 이것은 당연히 사려를 가리킨 것이다.²³⁾ 우리가 주목할 바는 감정과 사려에 앞서 맨 처음 비롯된 지각이 실제로 무엇을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의 지각은 단순히 사태를 감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문득 경악(驚愕)·측은(惻隱)의 감정과 상량(商量)·계교(計較)의 사려를 잇달아 일으킨 모든 원인이 되었다.

우물에 바깥 구렁이가 빠지면, 경악은 하더라도 마침내 대상의 처지를 측은히 여기지는 않는다. 추물의 난동에 대한 이 경악은 자가의 편익이 부당한 데서 생긴다. 반면에 저 경악은 대상의 처지가 마땅할 것을 욕구한 데서 생겼다. 측은의 원인도 여기에 있었다. 우물에 옆집 송아지가 빠지면, 상량은 하더라도 마침내 자가의 편익을 계교하지는 않는다. 재물의 손실에 대한 이 상량은 대상의 처지가 부당한 데서 생긴다. 반면에 저 상량은 자가의 편익이 무던할 것을 욕구한 데서 생겼다. 계교의 원인도 여기에 있었다.

당시의 지각은 대상의 처지가 마땅할 것과 자가의 편익이 무던할

21)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36: 3a. 「答李宏仲問目」: “此說明白的當, 學者深味而熟察之, 則久乃見之, 不須別立話頭也.”

22) 朱熹, 『晦庵集』(四庫全書) 32: 11a. 「問張敬夫」: “今夫乍見孺子入井, 此心之感也. 必有怵惕惻隱之心, 此情之動也. 內交要譽惡其聲者, 心不幸而情之失其正也.”

23)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25: 19b. 「答鄭子中講目」: “惻隱之發, 而有納交要譽之失者, 意爲之.”;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29: 14b. 「答金而精」: “陳安卿曰, 思慮念慮之類, 皆意之屬, 此說通矣.”

것을 감정과 사려에 앞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지각의 양상이 둘이니, 하나는 사물의 의리를 파악하는 바였고, 하나는 신상의 이해를 파악하는 바였다. 전자는 ‘아이를 살려야 마땅하다.’의 당연과 ‘아직은 죽을 목숨이 아니기 때문이다.’의 소연을 내용으로 가진다. 그런데 이것이 마침내 아이를 건지는 동기가 되지는 못했다. 후자가 일으킨 상량·계교의 사려에 전자가 일으킨 경악·측은의 감정이 문득 가렸던 것이다.

우물에 빠지는 송아지를 만나는 상량이 재물을 아끼는 형기의 욕구를 좇아서 나오듯, 우물에 빠지는 아이를 보았던 경악·측은도 실상은 목숨을 아끼는 형기의 욕구를 바탕으로 가진다. 그러나 전자는 다만 형기의 욕구에 그치는 인욕(人欲)에서 나왔다. 반면에 후자는 본디 성명으로 주어진 천리(天理)에서 나왔다.²⁴⁾ 그것이 재물을 아끼듯 목숨을 아끼는 형기의 욕구를 타고 나왔을 뿐이다. 그러니 경악·측은과 상량·계교가 모두 인심이 아닌 것이 없지만, 도심을 이루고 인심에 그치는 차이가 뚜렷하게 나뉜다. 신상의 이해를 파악하는 지각과 사물의 의리를 파악하는 지각은 이와 같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가운데 또한 뚜렷이 구별되는 양상과 속성을 지닌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목숨이면서 반드시 사람이라야 하는 까닭에 성명의 욕구만 아니라 형기의 욕구를 언제나 아울러 가진다. 욕구는 의욕(意欲)과 다르다. 의욕은 사려를 통하여 일부러 지각을 부리는 바지만, 욕구는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지각을 낳는다. 성명의 욕구를 좇아서 나오는 지각이 형기의 욕구를 좇아서 나오는 지각에 가리는 현상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지각이 비롯하는 바의 위치와 그 영역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마음이 아직 발현하지 않은 때는 기(氣)가 아직 용사(用事)하지 않아 오직 리(理)일 뿐이니, 어찌 악(惡)이 있으랴? 다만 발현하는 때에 리가 기에 가리어 비야흐로 악으로 가니, 이것이 이른바 ‘기미(幾微)가 선악(善惡)을 가른다.’는 것이고, 두 가지 것이 서로 마주 섬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님을 선유(先儒)가 힘써 구별한 것이다.²⁵⁾

24)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23: 24b. 「答趙士敬」: “生於耳目口鼻等之心, 不失正理, 則皆天則也. 故人心不可謂之人欲.”

25)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13: 7a-7b. 「與洪應吉」: “心之未發, 氣未用事, 唯理而已, 安有惡乎. 惟於發處, 理蔽於氣, 方趨於惡, 此所謂幾分善惡, 而先儒力辨其非有兩物相對而生者也.”

퇴계는 성명의 욕구를 좇아서 나오는 지각이 형기의 욕구를 좇아서 나오는 지각에 가리는 현상을 마음이 다만 발현하는 때의 기미(幾微)에 이르러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기미는 곧 감정과 사려의 미동(微動)을 뜻한다.²⁶⁾ 그러니 성명의 욕구를 좇아서 나오는 지각이 형기의 욕구를 좇아서 나오는 지각에 가리는 현상은 특히 감정과 사려가 처음 비롯하는 때의 기점에 놓인다. 감정과 사려는 곧 기미의 현저(顯著)를 뜻한다. 그러니 지각이 비롯하는 바의 위치는 기미의 앞에 놓인다.

감정과 사려가 이미 비롯하여 드러난 상태를 이발(已發)이라 이르고, 감정과 사려가 아직 비롯하지 않은 상태를 미발(未發)이라 이른다. 이발의 기점이 되는 것은 기미다. 따라서 무릇 욕구의 대상을 파악하는 지각은 당연히 미발의 상태에 놓인다.²⁷⁾ 그러나 비록 미발의 상태에 놓여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적(動的)인 상태다.²⁸⁾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러한 지각을 지니는 까닭에 이발과 미발을 통틀어 언제나 밝게 깨어 있는 가운데 사리(事理)에 어둡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의욕의 대상을 파악하는 지각은 사려의 주재를 받는다. 따라서 영역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반면에 욕구의 대상을 파악하는 지각은 사물의 왕래를 맨 처음 응접하고 이로써 모든 감정과 사려를 촉발하는 데서 고유한 영역을 가진다. 그러나 지각만 가지고는 생리를 실현할 수 없으니, 감정의 기력(氣力)과 사려의 결단(決斷)이 있어야 실천이 따른다. 욕구의 부름을 받아서 처물(處物)과 처신(處身)에 이르게 하는 것은 감정과 사려다.

2. 감정과 사려 및 사물의 의의

지각은 사물을 느껴서 알아차리고 깨닫는 바로서 마음이 비록 미발의

26) 朱熹, 『朱子語類』(四庫全書) 94: 47b. 「周子之書」: “幾者, 動之微. 微, 動之初, 是非善惡於此可見. 一念之生, 不是善, 便是惡. 孟子曰, 道二, 仁與不仁而已矣, 是也.”

27) 朱熹, 『晦庵集』(四庫全書) 48: 25a. 「答呂子約」: “蓋心之有知, 與耳之有聞, 目之有見, 爲一等時節, 雖未發而未嘗無.”; 李滉, 『退溪先生續集』(文集叢刊) 24: 10a. 「答鄭子中別紙」: “未發之前知覺有無之說, 朱子答呂子約書, 論之詳矣.”; 李珣, 『栗谷先生全書』(文集叢刊) 21: 21b-22a. 「聖學輯要三·修己第二中」: “若物之過乎目者, 見之而已, 不起見之心, 過乎耳者, 聞之而已, 不起聞之之心, 雖有見聞, 不作思惟, 則不害其爲未發也.”

28) 朱熹, 『朱子語類』(四庫全書) 96: 16b. 「程子之書二」: “曰, 知覺便是動否. 曰, 固是動. 曰, 何以謂之未發. 曰, 未發之前, 不是瞭然不省, 怎生說做靜得. 然知覺雖是動, 不害其爲未動.”

상태에 있을 때라도 언제나 그 작용을 멈추지 않는다. 예컨대 귀가 들음이 있고 눈이 바라봄이 있는 것은 감정과 사려가 있든 없든 언제나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각이 있어도 여기에 마침내 감정과 사려가 따르지 않으면 마음의 본체가 거의 쓰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각은 수용(受容)하는 기능일 뿐이지 운용(運用)하는 기능이 아니다. 마음을 운용하는 기능은 감정과 사려가 맡는다.

달빛 밝고 별빛 맑아 가을 하늘 가득하고,
아련한 먼 물소리 바람 속에 잠긴다.
빈 서재에 홀로 앉아 다만 깨어 듣는 사이,
결을 따라 이 마음도 있다 없다 하누나.²⁹⁾

한밤에 보고 듣는 바의 사물과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움직임은 였었다. 여울에 울리는 물소리가 바람소리에 휩쓸려 가끔씩 한동안을 들리지 않는다. 바람은 가깝고, 물소리는 아련히 멀다. 아련한 그것이 들리면 내 마음도 여기에 있고, 들리지 않으면 내 마음도 여기에 없다. 이것은 상심(賞心)의 하나다. 물소리를 향하는 심미 감정인 것이다. 이러한 정경(情境)을 느껴서 알아차리고 깨달은 것은 지각이다. 말로써 옮겨온 것은 사려다.

감정은 곧 정(情)을 말하니, 이것은 지각을 일으킨 마음이 이로 말미암아 동정(動靜)을 나누어 가지는 가운데 맨 처음 생긴다. 사려는 곧 지(志)와 의(意)를 말하니, 이것은 감정을 일으킨 마음이 이로 말미암아 정처(定處)와 향방(向方)을 찾아서 이르는 가운데 생긴다. 정처를 얻은 것은 지에 속하고, 향방을 찾은 것은 의에 속한다. 사려는 또한 사(思)·념(念)과 려(慮) 등의 여러 갈래를 지닌다. 다음과 같은 퇴계의 예시를 주목할 만하다.

그대가 곤란과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원지로 유학을 떠난 것은 지(志)이다. 이러한 마음[心]이 사무에 따라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한 가지 생각을 내는 것은 의(意)이다. 시시와 각각의 현재에 있는 마음은 념(念)이다. 그래서 피하고 헤아리는 바가 있는 것은 려(慮)이다. 문자에 담긴 의리를 아득히 찾아서 풀어내고 사물을 맞이하는 데서 이제의 것과 저제의 것을 떠올리는 것은 사(思)이다.³⁰⁾

29) 李滉, 『退溪先生全書遺集·內篇』(陶山全書) 1: 5a. 「無題」: “月明星槩滿霜空, 遠水微聲沈滲風. 獨坐虛齋惟警惕, 心存心逸片時中.”

30)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29: 15a. 「答金而精」: “如公之不計艱險, 作此遠遊,

마음이 사물을 느껴서 알아차리고 깨달은 나머지 이전의 적연한 상태를 바꾸어 새롭게 일정한 상태를 이루면 곧 정이니, 마음이 비로소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움직인 나머지 바르든 그르든 어떠한 한 가지 뜻을 한 걸로 바라고 가서 머물면 곧 지이고, 머무는 이것과 떠나는 저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헤아리고 하도록 부추기면 곧 의이다.³¹⁾ 사·념과려는 의를 갈래에 따라 달리 일컫는 말이다. 평상(平常)에 놓이면 곧 사이고, 경각(頃刻)에 놓이면 곧 념이고, 미연(未然)을 피하면 곧 려이다.³²⁾

사려는 의가 그 핵심을 이룬다. 의는 본디 정을 좇아서 그 정을 부리는 것이다. 예컨대 어떠한 사물을 느껴서 좋고 느껴서 싫은 것은 정이고, 느껴서 좋은 것을 좋아하고 느껴서 싫은 것을 싫어하는 것은 의이다. 이러한 의가 갈래를 쳐서 계도(計圖)·우탁(度)과 기억(記憶)·추리(推理)의 사려를 이루니, 사려는 다만 정을 부리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사려가 아니면 지각을 통하여 감득한 사물의 이치를 해석과 실천의 영역에 부여할 수 없으니, 사려의 본질적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생각(思)하면 [사물의 이치를] 얻을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기자(箕子)는 '사(思)는 예(睿) - 통효(通曉) - 를 말하는 것이다.' '예(睿)가 성인(聖人)을 이룬다.'라고 하였고, 공자(孔子)는 '군자는 아홉 가지 생각(九思)을 가진다.'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어찌 멀리에 있으랴?'라고 하였다.³³⁾

마음을 영역에 따라 나누면 크게 둘이다. 하나는 지각의 지각하는 곳이고, 하나는 사려의 사려하는 곳이다.³⁴⁾ 그런데 지각은 이로써 사물을 느껴서 바야흐로 감정과 사려가 비롯될 만한 계기를 이루되, 사물의 왕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후자가 거듭 전자를 가리는 현상을 마침내 스스로 막지 못한다. 이러한 지각을 망각의 늪에서 구출하는 것은 사려

志也. 此心隨事發一念要如何爲之, 意也. 時時刻刻今頃所在之心, 念也. 因而有所圖虞, 慮也. 文字義理, 眇綿尋繹, 事物酬應, 新舊省記, 思也.”

31) 朱熹, 『朱子語類』(四庫全書) 5: 23b. 「性理二」: “心之所之謂之志, 日之所之謂之時. 志字從之從心, 豈字從之從日. 如日在午時在寅時, 制字之義由此. 志是心之所之, 一直去底. 意又是志之經營往來底, 是那志底脚. 凡營爲謀度往來, 皆意也.”

32)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29: 14b-15a. 「答金而精」: “逐頃逐刻, 此心所在, 謂之念.”; “思有所圖曰慮.”; “思, 韻會念也, 然念不足以盡思義. 念淺而思深, 念疎而思密.”

33)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29: 15b. 「答金而精」: “思則得之, 不思則不得. 故箕子曰, 思曰睿, 睿作聖, 孔子曰, 君子有九思, 未之思也, 夫何遠之有.”

34) 朱熹, 『朱子語類』(四庫全書) 15: 30a. 「大學二」: “知與意皆出於心. 知是知覺處, 意是發念處.”; 朱熹, 『朱子語類』(四庫全書) 5-26b. 「性理二」: “知與手相似, 思是交這手去做事也. 思所以用夫知也.”

다.³⁵⁾ 지각은 여기에 반드시 사려가 따라야 비로소 완전한 의식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의 의식에 있어서 사물과 감정은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 것인가?

내 생각은 어디에 있나?
바위틈 샘물이 울리던 데서 울린다.
옛 숲이 매우 좋았지.
찬 여울은 저절로 슬픈 소리다.³⁶⁾

사물과 감정은 본디 지각하는 곳에서 생긴다. 그러나 이제의 것과 저제의 것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울리던 데서 울린다.’라고 하였다. 저제의 것은 사려하는 곳에서 기억하고 연상하는 가운데 이끌려 나온다. 그래서 ‘옛 숲이 매우 좋았지.’라고 하였다. 언젠가 문경을 거쳐 서울로 가던 길에 듣고서 좋았던 저 여울의 물소리를 오늘은 다시 관복을 입은 채로 공무에 바쁜 몸이 되어 듣는다.³⁷⁾ 그래서 ‘저절로 슬픈 소리다.’라고 하였다.

여울의 물소리는 본디 쾌적한 것이다. 쾌적한 그것이 문득 향수를 불러고, 향수가 마침내 한탄을 낳았다. 한탄은 신세를 지각한 데서 나왔고, 향수는 고향의 옛 숲을 추억한 데서 나왔다. 고향의 옛 숲은 언제나 가지는 의지(意志)의 향방이다. 여기서 이렇게 슬픔을 일으킨 것이 아니면 계상의 초옥과 도산의 축대에 마지막 머물던 퇴계는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감정은 의지에 앞서 생기는 실천의 동기다. 사물은 바로 그 감정을 촉발하는 매개다.

일상의 체험에 있어서 지각과 감정과 사려는 서로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섞인다. 그러나 차별과 경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각은 반드시 눈앞의 사물과 접촉하고 있는 동안에 생기는 것이나, 감정은 공연히 기억에 잠재하는 사물의 형상을 떠올려 생기는 경우도 흔하다. 지각은 언제나 현재의 객관적 사물을 대상으로 삼지만, 사려는 언제나

35) 朱熹, 『孟子集註大全』(四庫全書) 6: 49a. 「告子章句上」: “耳目之官, 不思而蔽於物, 物交物則引之而已矣.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

36) 李滉, 『退溪先生續集』(文集叢刊) 1: 11b. 「又和擬古」: “我思在何許, 巖泉鳴處鳴. 故林非不好, 寒瀨自愁聲.”

37) 李滉, 『退溪先生續集』(文集叢刊) 1: 11a-11b. 「聞慶慶雲樓西閣, 對山臨池極清絕. 金貳相李貳相皆題詠. 主人趙良弼導余以登眺」: “春深花映竹, 風細雨斜池. 靜裏泉聲咽, 渾疑說我詩.” ※ 이것에 잇달아 「又和擬古」를 지었다. 시기는 42세 늦은 봄이다.

지각을 반성한 결과나 그에 따른 기억을 대상으로 삼는다. 감정은 지각을 추월하지 못한다. 사려는 또한 지각을 대체하지 못한다.

III. 지각과 미적 인식

1. 심미 지각의 원리와 방법

지각은 마음의 발현과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다. 지각이 파악하는 바의 사물은 생리의 적부를 요구하는 마음의 욕구를 좇아서 저절로 우리의 눈앞에 놓이고, 이로써 마음이 구비하는 바의 이치를 빠짐이 없이 다 비춘다. 사물이 촉발하는 바의 감정은 사물의 선악(善惡)과 미추(美醜) 및 마음의 호오(好惡)를 좇아서 저절로 우리의 가슴에 맺히고, 이로써 마음이 실행하는 바의 명분을 남김이 없이 다 보인다. 사물과 감정은 감수(感受)와 응수(應酬)의 관계다. 마음은 이러한 감응(感應)을 통틀어 주재하는 본체다.

사람의 마음(心)은 체용(體容)을 갖추어 적감(寂感)을 아우르고 동정(動靜)을 거둬한 다. 그렇기 때문에 물(物)을 아직 느끼지 않았을 때는 적연히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온갖 리(理)를 모두 갖추어 마음의 전체(全體)가 보존되지 않음이 없고, 사물(事物)이 다가오면 느껴서 드디어 막힘이 없이 두루 깨닫는 가운데 품행(品行)의 절조(節操)가 어긋나지 않아 마음의 대용(大用)이 실행되지 않음이 없다. 정(靜)은 적연(寂然)하여 미발(未發)한 것을 말하고, 동(動)은 감응(感應)하여 이발(已發)한 것을 말하니, 사람이 삼재(三才)의 하나에 들어가 중정(中正)의 준칙(準則)을 수립하는 까닭은 이러한 두 가지 단예(端倪)를 벗어나지 않는다.³⁸⁾

퇴계는 지각에 따른 마음의 감응을 사람이 삼재(三才)의 하나에 들어가 중정(中正)의 준칙(準則)을 수립하는 이유로 들었다. 감응은 만물을 낳는 천지의 마음이 하나의 음양(陰陽)을 거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지의 일부인 사람의 마음이 또한 하나의 음양을 거둬하는 데서 유래하는 현상이다. 감응이 없으면 만물이 없으며, 이것은 곧 천지와 사람이 만사로

38)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19: 39b. 「答黃仲舉」: “人心備體用, 該寂感, 貫動靜. 故其未感於物也, 寂然不動, 萬理咸具, 而心之全體無不存, 事物之來, 感而遂通, 品節不差, 而心之大用無不行. 靜則寂而未發之謂也, 動則感而已發之謂也, 人之所以參三而立極者, 不出此兩端而已.”

더불어 모두 없음을 뜻한다.³⁹⁾ 하물며 세속의 이해를 떠나서 오로지 미적 만족을 위하는 우리의 심미 활동은 더욱 예외가 아니다. 그러면 어떠한 감응일 때에 우리는 특히 미적 만족을 얻게 되는가?

농가는 이제야 단비를 얻어서, 기쁨이 들뜬에 가득 넘친다. 산을 마주하고 샘물 소리를 듣고 있자니, 경(境)과 의(意)가 하나로 모인다. 뜰에 난 풀들은 나의 마음과 한가지로 같고,⁴⁰⁾ 온갖 것들은 저마다 스스로 흡족해 한다. 집안에 앉아 꼬박 하루를 보내되, 즐거움이 또한 가없다. 생각해 보건대, 이러한 뜻이 나와 같을 듯싶다.⁴¹⁾

퇴계가 그의 65세 첫여름에 월천(月川)의 처소로 보낸 서간의 한 단락이다. 단비에 세차게 자라 오르는 풀들과 더불어 한가지로 같은 생의(生意)를 품는 뿐만 아니라 온갖 것들의自得(自得)한 모양을 함께 기뻐하고 흐뭇하게 여기던 당시의 일상을 적었다. 아울러 이만한 일로써 꼬박 하루를 보내도 '즐거움이 가없다.'라고 할 만큼 지극한 만족에 이르던 원인을 가리켜 '경(境)과 의(意)가 하나로 모인다.'라고 적었다. 여기서 '경(境)은 곧 지각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사물의 경계를 말한다. 그러면 '의(意)는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앞에서 이미 논급한 바지만, 어떠한 사물을 느껴서 좋은 것을 좋아하고 싫은 것을 싫어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곧 의(意)이다.⁴²⁾ 이것을 흔히 의향(意向)이라고 이른다. 의향은 느껴서 좋은 것에 대하여 우리의 지각과 사려를 거둬 고정시키는 의식의 집중을 낳는다. 이것을 흔히 관심(關心)이라고 이른다. 관심은 중시(重視)와 애호(愛好)의 과정을 위주로 하는 주의(注意)의 하나다. 이러한 관심이 더할 나위 없이 충족된 상태에 이르면, 이것을 흔히 만족이라고 이른다. 그러나 이것과 미적 만족을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관심의 충족은 단순히 의향을 좇아서 바라는 경계를 일방으로 만끽한 결과일 뿐이지, 실제로 지각을 통해서 느끼는 경계를 전적으로 주의한

39) 楊時, 『二程粹言』(四庫全書) 下-4a. 「天地篇」: “天地之間, 感應而已, 尚復何事.”; 朱熹, 『朱子語類』(四庫全書) 65: 21a. 「易一」 “心只是箇動靜感應而已. 所謂寂然不動, 感而遂通者是也.”

40) 朱熹, 『伊洛淵源錄』(四庫全書) 1: 5a. 「濂溪先生·遺事」: “周茂叔, 窓前草不除去, 問之云, 與自家意思一般. 子厚, 觀驢鳴, 亦謂如此.”

41)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23: 22a. 「答趙士敬」: “田家得雨, 喜騰郊野. 對山聽泉, 境與意會. 庭草一般, 萬物自得. 小堂終日, 樂亦無窮. 想此意同之也.”

42) 朱熹, 『朱子語類』(四庫全書) 5: 23a. 「性理二」: “問, 情意如何體認. 曰, 性情則一. 性是不動, 情是動處, 意則有主向. 如好惡是情, 好好色, 惡惡臭, 便是意.”

결과가 아니다. 이러한 종류의 만족은 정작에 신체의 쾌적한 감각과 신상의 편익을 누리는 데서 그친다. 이것은 일상적 만족의 한계다. 반면에 미적 만족은 지각을 통해서 느끼는 경계와 의향을 좇아서 바라는 경계가 완전한 일치로 이루는 곳에서 생긴다. 퇴계는 바로 이것을 가리켜 '경(境)과 의(意)가 하나로 모인다.'라고 적었다. 여기서 누리는 만족은 신체의 쾌적한 감각과 신상의 편익을 넘어서 사물의 형식과 실질을 그 자체로 즐기는 성질의 것이다.

지각을 통해서 느끼는 경계와 의향을 좇아서 바라는 경계가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경지는 의식에 수반된 지각과 감정과 의향이 일정한 사물의 경계를 기초로 통일된 자연적 집중의 결과다. 예컨대 연명(淵明)의 '동편 울타리 밑에서 국화 꽃잎을 따고, 느긋하게 남산을 바라본다.'로 말하면, 당시의 '남산을 바라본다.'와 같은 정경은 미리 어떠한 의향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 것처럼 흐뭇한 감정을 머금은 것이 아니다.⁴³⁾ 이러한 종류의 만족은 또한 관심의 대상과 그 범위가 본디 의향을 좇아서 선택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의향의 전체를 저절로 아울러 가진다.

우리가 특히 미적 만족을 얻는 감응은 이상과 같이 밖으로 마주한 사물과 안으로 가지는 의향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들어맞아 흐뭇한 즐거움을 더하는 경우다. 여기에 이르는 관건은 사물을 응접하는 방법에 있으니, 우선은 관심을 부르는 의향이 우리의 지각을 제약하지 않아야 비로소 지각과 감정과 의향이 일정한 사물의 경계를 기초로 통일된 자연적 집중을 이룬다. 이러한 감응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서, 다음은 사물을 응접하는 방법의 요점을 간추린 것이다.

마음(心)이 사물(事物)을 맞이함에 있어서, 아직 다가오지 않아서는 [바라고 기다려] 맞이하지 않고, 바야흐로 다가오면 [막히고 가리는 바가 없도록] 모두 다 비추고, 이미 맞이하고 나서는 [깨끗이 비워서] 남기지 않아, [마음의] 본체(本體)가 밝은 거울과 그친 물처럼 맑으면, 나날이 비록 만사(萬事)를 겪을지언정 마음에 일찍이 한 가지 사물도 있지 않을 것이니, 아직도 어찌 마음에 해를 끼침이 있을 것인가?⁴⁴⁾

43) 蘇軾, 『東坡志林』(四庫全書) 5: 5a. "陶潛詩,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 採菊之次, 偶然見山, 初不用意, 而境與意會, 故可喜也."

44)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28: 4b-5a. 「答金惇毅」: "心之於事物, 未來而不迎, 方來而畢照, 既應而不留, 本體湛然, 如明鏡止水, 雖日接萬事, 而心中未嘗有一物, 尙安有爲心害哉."

퇴계의 견해에 따르면, 의향이 우리의 지각을 제약하는 양상은 기대(期待)에 속하는 것과 유의(留意)에 속하는 것으로 크게 나뉜다. 기대는 미래의 어떠한 사물을 미리 기다리고 바라는 마음을 말한다. 이것은 일부터 무엇을 하고자 애쓰는 작위(作爲)를 부르고, 마침내 조장(助長)의 폐단을 낳는다. 유의는 기왕의 어떠한 사물에 아직 사무쳐 잊지 못하는 마음을 말한다. 이것은 반드시 무엇을 얻고자 애쓰는 기필(期必)을 부르고, 마침내 인색(吝嗇)의 폐단을 낳는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장자(莊子)의 논변에 그 유래가 있기는 하지만,⁴⁵⁾ 우리의 마음에 본디 안팎이 따로 없음을 강조한 점에서 새롭다. 우리의 마음은 그 본체가 밝은 거울과 그친 물처럼 맑으니, 언제나 눈앞에 주어진 현재의 사물이 곧 마음의 안이자 또한 밖이다. 이것은 만물에 두루 미쳐서 만물로 그 본체를 삼는 무심(無心)의 경지에 가깝다.⁴⁶⁾ 그러나 마음에 어떠한 기대나 유의가 놓이면, 기대와 유의는 안이 되고 사물은 밖이 되어 안팎이 서로 나뉜다. 미래나 기왕의 어떠한 사물이 눈앞에 주어진 현재의 사물을 가리는 만큼 마음도 반드시 함께 가리게 되는 엇매임이 바로 여기서 생긴다.

기대와 유의는 의향이 사적 이해나 사적 호오에 이끌려 한낱 사의(私意)에 떨어진 결과다. 사의가 지각을 가리면, 사물의 선악과 미추가 사물의 형식과 실질에 구비된 자연의 이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아의 사적 이해나 사적 호오의 적부에서 나온다. 따라서 사의가 없어야 바야흐로 다가오는 사물을 남김이 없이 다 비추어 사물과 자아가 하나로 모이는 바의 심미 지각을 얻는다. 이것은 사물의 형식과 실질을 그 자체로 즐기는 심미 활동의 가장 중요한 전제다. 그러면 이러한 심미 지각은 무엇에 근거하는 것인가?

요즈음 계상(溪上)의 서실에서 지내는 터인데, 밤을 이어 달빛이 너무 밝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잠이 없게 만든다. 오늘은 우연히 하산(霞山)에 갔더니, 사경(士敬)이

45) 申益槐, 『克齋先生文集』(文集叢刊) 9: 30b-31a. 「雜著·性理彙言」: “莊子曰, 至人之用心若鏡, 不將不迎, 應而不藏, 故能勝物而不傷. 語亦甚正.”; “聖人之心, 事物未至, 而無期待者, 猶妍媸未至, 鏡無期待也. 事物既至, 而無偏繫者, 猶妍媸既至, 鏡無私照也. 事物既去, 而無留滯者, 猶妍媸既去, 鏡依舊虛明也.” ※ 『장자』(莊子) 「응제왕」(應帝王) “無爲名尸” 단락을 인용했다.

46) 程顥, 『二程文集·明道文集』(四庫全書) 3: 1b. 「答橫渠先生定性書」: “天地之常, 以其心普萬物而無心. 聖人之常, 以其情順萬事而無情. 故君子之學, 莫若擴然而大公, 物來而順應.”

찾아와 '월천(月川)의 야경(夜景)이 마침 의(意)와 더불어 하나로 모여 매우 흐뭇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옛 사람들의 이른바 '맑은 바람과 맑은 달[光霽]은 본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달빛과 바람을 깊도록 느껴 마지않다가, 돌아와 절구(絶句) 하나를 지어 사경에게 보낸다.

계당(溪堂)에 맑은 달이 천당(川堂)도 밝고,
어젯밤에 맑던 바람이 오늘밤도 맑다.
이밖에 또 한 가지 맑고 밝은 곳이 따로 있으니,
우리가 어찌면 명성(明誠)을 몸소 밝힐꼬?⁴⁷⁾

퇴계가 그의 64세 첫가을에 월천의 처소로 보낸 시와 그 사연이다. 보름을 지나던 당시의 달빛은 퇴계가 보아도 밝았고, 월천이 보아도 밝았다. 바람도 맑았다. 어제와 그랬고, 오늘도 그랬다. 월천은 이것을 몹시 아름답게 여기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한 나머지 부용봉에서 자하봉까지 십리가 훨씬 넘는 길을 훌쩍 날아와 앉았다. 월천의 이러한 감흥(感興)은 당연히 미적 만족의 지극한 것에 속한다. 퇴계도 그에 못잖은 감흥에 밤을 이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퇴계는 어찌서 다시 '맑은 바람과 맑은 달'의 또 다른 의미를 일컫는 것인가?

당시의 달빛과 바람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한가지로 맑고 맑았다. 퇴계와 월천은 또한 그것을 한가지로 흐뭇하게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情況)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지각에 한해서 선언하는 때만 사물의 객관성과 더불어 필연적 관련을 지닌다. 달빛과 바람이 아무리 맑고 맑아도 이것을 느껴서 깨닫는 우리의 지각이 아니면 저들은 마침내 맑고 맑도록 지니는 자체의 형식과 실질을 드러내지 못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물의 드러남은 그것이 뚜렷할수록 우리의 지각도 그만큼 뚜렷한 깨달음이 있음을 뜻한다. 요컨대 모든 물성(物性)의 드러남은 또한 인성(人性)의 깨달음을 뜻하는 것이다.

퇴계가 따로 일컫던 '맑은 바람과 맑은 달'은 인품(人品)의 맑고 맑은 것에 대한 하나의 비유다.⁴⁸⁾ 따라서 그것은 단순히 사물의 객관성을

47)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3: 55b. 「七月既望」: “溪上齋居, 連夜月色清甚, 令人無寐. 今日偶出霞山, 士敬尋到, 言其月川夜景, 適與意會, 欣然也. 然古人所謂光霽者, 殆不謂此. 爲之感歎, 既歸得一絕, 擬寄士敬云. 溪堂月白川堂白, 今夜風清昨夜清. 別有一般光霽處, 吾儕安得驗明誠.”

48) 朱熹, 『晦庵集』(四庫全書) 98: 28b. 「濂溪先生事實記」: “黃太史庭堅, 詩而序之曰, 茂叔人品甚高, 胸中灑落, 光風霽月.”

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성의 본질을 표시하는 바였다. 인성은 반드시 만물을 화육할 만한 본체의 명덕(明德)을 지니며, 명덕은 반드시 인정(人情)과 물리(物理)에 통달할 만한 명지(明知)를 지닌다. 명지는 곧 마음의 지각하는 곳이다. 명지를 밝히면 반드시 명덕에 이른다.⁴⁹⁾ 명덕은 곧 우리의 성명이다. 퇴계는 이것을 들어서 '맑고 밝은 곳이 따로 있다.'라고 하였다.

사물의 선악과 미추는 모름지기 만물에 두루 미쳐서 만물로 그 본체를 삼는 우리의 명지에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의 심미 지각은 이러한 명지의 가장 정예로운 기능의 하나다. 사람의 마음은 명지를 지니는 까닭에 사물의 선악과 미추를 철저히 비추어 깨달을 수 있으니, 선(善)과 미(美)의 지극한 것을 누리는 즐거움은 오직 사람이 가진다. 사람은 것처럼 심미 지각을 가지는 짐에서 여타의 짐승과 다르다. 그러나 사물의 아름다운 것을 찾아 즐기는 일과 명지를 가꾸는 일은 서로 다른 사업이 아니다.

2. 자연미의 본질과 근원

퇴계가 어느 날 무단히 임소를 버리고 돌아와 고향집 근처의 조붓한 냇가에 초옥을 하나 지어서 종신할 자리로 삼았던 것은 그의 50세 이른 봄의 일이다.⁵⁰⁾ 이후로 그가 가장 흐뭇하게 여기던 일상은 '깊도록 마음을 쏟는 것은 물가의 돌이고, 몹시 즐기는 것은 다만 술과 대이다.'라던 것이나, 아니면 '산에 살아 손익(損益)을 따지는 것은, 냇가에 나가 물소리를 더 듣고 덜 듣고 하는 일이다.'라던 것이다.⁵¹⁾ 그러니 돌아온 까닭은 학문에 있었을 테지만, 학문을 위하는 자취의 태반은 산수(山水)와 천석(泉石)에 나아가 홀로 자연미를 찾아 즐기는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퇴계가 이토록 지극한 애호의 감정을 보내던 자연미는 정작에 무엇을

49) 朱熹, 『中庸章句大全』(四庫全書) 下: 24b-25a. 「第二十一章」: “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 “誠則無不明矣, 明則可以至於誠矣.”

50) 柳成龍, 『退溪先生年譜』(文集叢刊) 1: 10b. 「先生五十歲」: “正月, 以擅棄任所, 奪告身二等. 二月, 始卜居于退溪之西, 構寒栖菴.”; 權五鳳, 『退溪의 燕居와 思想形成』(포항공과대학, 1989). 42-72쪽 참조.

51)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1: 48a. 「溪居雜興二首」 第1首 頷聯: “深耽惟水石, 大賞只松篁.”; 「溪居雜興二首」 第2首 頸聯: “山居思損益, 溪聽聽韶咸.”

말하는 것인가?

밝은 달은 하늘에 있고,
그윽이 묻혀 사는 사람은 창 아래에 있다.
금빛 물결이 맑은 못에 굽이쳐 흐르되,
워낙 둘이 아니라.⁵²⁾

못물에 마치 쏟아져 내리듯 금빛 속살을 드러낸 달빛을 읊었다. 퇴계는 못물이 하늘의 달빛을 바람에 스쳐서 받아낸 물결의 금빛에 나아가 문득 달빛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른바 자연미는 이와 같이 자연 사물에 드러난 자연 사물의 아름다움을 일컫는 말이다. 자연미는 자연 사물의 형식과 실질이 가지는 객관적 속성의 하나다. 예컨대 물결의 금빛은 못물에 비치는 달빛의 한 형식을 이루고, 금빛인 이 형식은 하늘의 달빛을 실질로 가진다. 물결의 금빛은 달빛의 아름다움을 못물에 드러낸 바탕이 되었고, 하늘의 달빛은 그렇게 드러난 까닭이 되었다.⁵³⁾ 퇴계는 이것을 가리켜 ‘워낙 둘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퇴계의 이 시는 저절로 하나의 비유를 이룬다. 마음의 본체를 밝은 거울과 그친 물에 비유한 사례가 있음을 보건대, 여기서 말하는 맑은 못은 곧 마음의 지각하는 곳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하다. 물결의 금빛과 하늘의 달빛의 관계는 곧 어떠한 자연 사물에 대하여 우리의 지각이 그 대상으로 가지는 것과 자연 사물의 실제의 관계다. 그러니 비록 상당한 왜곡과 착오를 보이는 한에도, 어떠한 자연 사물에 대하여 우리의 지각이 그 대상으로 가지는 것과 자연 사물의 실제는 본디 하나다. 그러면 저 달빛의 아름다움을 일컫는 때의 자연미는 마침내 대상과 실제의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마음이 오직 몸 안에 있을 양이면 몸 밖은 무엇인가? 또한 이 물건-마음-일 뿐이다. 이 물건은 무엇인가? 곧 몸을 가득 채운 물건이다. 그러면 측은(惻隱)의 마음도 몸 밖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니] 이 한 몸으로부터 천지(天地)와 만물(萬物)에 이르는 모든 것이 다만 이 하나의 리(理)-인(仁)-일 뿐이다. 리가 하나니, 기(氣)가 또한 둘이 아니다. 그래서 [정자(程子)는] ‘한 사람의 마음이 곧 천지의 마음이다.’라고

52)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2: 14b. 「八月十五夜西軒對月」: “明月在天上, 幽人在窓下. 金波湛玉淵, 本來非二者.”

53) 朱熹, 『朱子語類』(四庫全書) 25: 53a. 「論語七·八佾篇」: “問, 善者美之實. 曰, 實是美之所以然處. 且如織出絹與布, 雖皆好, 然布終不若絹好.”

하였다.⁵⁴⁾ 몸 밖에 다시 무엇이 따로 있는가? 말할 만한 방체(方體)가 없고 나눌 만한 내외(內外)가 없는 이것-마음-이 있을 뿐이다.⁵⁵⁾

대상과 실제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할 비는 지각을 일으키는 마음의 본질일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방체(方體)가 없으니, 이것은 면적(面積)·체적(體積) 등의 분량(分量)을 가지고 말할 수 없음을 뜻한다. 우리의 마음은 내외(內外)가 없으니, 이것은 주객(主客)·자타(自他) 등의 상대(相對)를 가지고 나눌 수 없음을 뜻한다. 우리의 마음은 천지와 만물이 그것을 함께 가진다. 그것의 크기와 넓이는 곧 절대(絶對)에 속하는 우주(宇宙)의 크기와 넓이다. 그래서 안팎을 또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중심이 따로 없다는 말인가?

이것-마음-은 또한 허공에 걸린 물건이 아니다. 사람이 몸을 가지면 이내 그것이 추뉴(樞紐)가 되고 총뇌처(總腦處)가 되는 까닭에 이 물건-마음-이 이 속에 가득 차서 천하의大本(大本)이 되고, 방체(方體)가 없고 내외(內外)가 없는 까닭에 이 속을 가득 채운 마음이 곧 만물(萬物)을 낳아 이루고 사해(四海)에 두루 이르는 마음이 되니, 몸을 떠나서 만물을 낳아 이루고 사해에 두루 이르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⁵⁶⁾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에서 그 중심을 이룬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이 그 본체를 움직여 모든 지각을 일으키고 이로써 만물을 느껴서 알아차리고 깨닫는 곳이다. 따라서 우리의 지각은 어떠한 경우든 당연히 몸으로 느끼는 감각과 더불어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지각이 마침내 감각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록 우리의 몸에서 그 중심을 얻지만, 그것은 결코 한 사람의 몸에 갇혀 있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주를 가득 채우는 바로서 없는 곳이 없고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이 이룬다. 따라서 우리의 지각은 어떠한 경우든 단순히 몸으로

54) 朱熹, 『二程遺書』(四庫全書) 2上: 1a-1b. 「元豐己未呂與叔東見二先生語」: “一人之心, 即天地之心, 一物之理, 即萬物之理, 一日之運, 即一歲之運.”

55)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19: 37b. 「答黃仲舉」: “腔子外是甚底. 亦只是這箇物事. 這箇物事是甚底. 即滿腔子底物事. 曰, 然則惻隱之心, 亦在外耶. 曰, 自這一箇腔子, 通天地萬物, 只此一理. 理一, 氣亦非二. 故曰, 一人之心, 即天地之心. 腔子外更別有甚. 只是這箇無方體可言, 無內外可分.”

56)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19: 37b-38a. 「答黃仲舉」: “然這也不是懸空底物事. 人有腔子, 乃其爲樞紐總腦處, 故這箇物事, 充塞在這裏, 爲天下之大本, 由其無方體無內外, 故充塞在這裏底心, 即是體萬物普四海底心, 非外腔子而別有箇體萬物普四海底心也.”

느끼는 감각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마음의] 이 리(理)는 몰아(物我)가 없고, 내외(內外)가 없고, 분단(分段)이 없고, 방체(方體)가 없다. 바야흐로 정(靜)하는 때는 완전한 전체(全體)를 갖추어, 이것이 [천지와 만물로 더불어 다 함께 가지는 일본(一本)을 이루니, 참으로 마음(心)에 있고 물(物)에 있는 따위의 나뉘이 없다. 동(動)하여 사물(事物)을 맞이하는 때는 사물이 저마다 가지는 리는 곧 나의 마음이 본디 갖추고 있던 리이다. 다만 마음이 주재(主宰)가 되어 저마다 그 법칙(法則)을 따라 맞이하게 되니, 어찌 반드시 나의 마음으로부터 미루어 나아간 뒤라야 사물의 리를 이루랴?⁵⁷⁾

우리의 마음은 그 리와 그 기가 천지와 만물로 더불어 하나다. 미발의 상태와 이발의 상태를 통틀어 언제나 그렇다. 그것은 몰아(物我)가 없고 분단(分段)이 없는 그 리와 그 기이다. 따라서 마음이 무엇을 느끼면, 그것은 반드시 우주의 전체가 느끼는 그 무엇을 뜻한다. 우리의 지각은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하는 까닭에 어떠한 사물이 되었든 그것을 접촉하는 순간에 곧장 그 본질을 느껴서 알아차리고 깨닫는 바의 직관을 판단력의 핵심으로 가진다. 그러니 우리의 지각을 어찌 감각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감각은 다만 한 사람의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감각은 사물의 피상을 반영하는 수준의 감각적 현현(顯現)에 그친다. 그러나 지각은 몸으로 느끼는 뿐만 아니라 천지와 만물로 더불어 언제나 하나인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지각은 우리가 바야흐로 감각적 현현을 얻는 찰나와 동시에 곧장 사물의 법칙을 파악하는 데까지 이른다. 지각의 이러한 직관은 사물의 법칙과 마음의 법칙이 본디 하나인 까닭에 가능한 것이다. 퇴계의 '사물이 저마다 가지는 리는 곧 나의 마음이 본디 갖추고 있던 리이다.'라는 정언은 직관이 가능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마음이 주재(主宰)가 되어 저마다 그 법칙(法則)을 따라 맞이하게 된다.'라는 규정은 직관에 이르는 방식을 밝혔다.

우리의 지각이 그 대상으로 가지는 것은 우리의 몸이 특정한 하나의 위치에서 특정한 하나의 사물을 접촉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바야흐로

57) 李滉, 『退溪先生文集』(文集叢刊) 24: 2b-3a, 「答鄭子中」: “此理無物我, 無內外, 無分段, 無方體. 方其靜也, 渾然全具, 是爲一本, 固無在心在物之分. 及其動而應事接物, 事事物物之理, 卽吾心本具之理. 但心爲主宰, 各隨其則而應之, 豈待自吾心推出而後爲事物之理.”

그것을 맞이하는 데서 생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접촉하는 바의 사물을 저마다 그 법칙에 따라 파악하는 직관의 결과로서 마음에 놓인다. 이렇게 마음에 놓이는 대상이 사람에 따라 기질에 막히고 욕구에 가려서 어질고 모자란 따위의 차이를 빚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지각이 지니는 본질적 능력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차이는 다만 한 사람의 몸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품질의 여하를 떠나서, 직관은 사물과 자아가 합일(合一)된 마음의 한 지점인 것이지 결코 자아의 외사(外射)가 아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우리의 지각이 그 대상으로 가지는 것을 통해서 사물의 실재를 깨닫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대상은 곧 직관의 결과이니 만큼 반드시 사물의 실재에 근거하는 바의 법칙을 실질로 가진다. 우리의 마음이 대상의 실재에 이르는 방법은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지각이 지니는 본질적 능력도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의 지각이 대상의 실재에 이르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지각이 대상으로 가지는 것과 자연 사물의 실재가 하나로 모이는 계기는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계기를 전제로 한 사람의 몸이 완전히 극복된 경우에 한해서, 자연미는 그제야 비로소 자연 사물의 실재에 근거하는 바의 객관적 형식을 얻는다.

IV. 결론

퇴계는 회암과 마찬가지로 이지(理智)의 판단력을 사려(思慮)에 앞서 지각(知覺)에 배당하는 입장에 있었다. 퇴계가 말하는 사람의 지각은 이른바 허령(虛靈)을 체(體)로 하는 마음의 용(用)으로서 단순히 감각(感覺)에 그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리(義理)의 당연(當然)과 소연(所然)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에 속한다. 따라서 그것은 감각만 아니라 직관(直觀)을 아울러 가지는 판단력의 하나다.

지각은 마음이 홀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며, 사물이 홀로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지각은 다가오는 사물과 맞이하는 마음이 선후(先後)와 인과(因果)를 가릴 수 없이 서로 열어 젖혀서 하나로 통하는 자연적 집중을 이룬다. 따라서 적어도 지각을 일으키는 찰나에 놓였던 우리의 마음은 도저히 이른바 자아(自我)나 사유(私有)를 세우지 못한다. 그것은

다만 하나의 허령한 공기(公器)일 뿐이다.

퇴계는 지각이 가능한 이유를 사람의 마음이 본디 허령한 데서 찾았다. 허령은 공허(空虛)와 영활(靈活)을 한데 아우른 말이다. 공허는 천지의 온갖 사물을 모두 다 비추어 낼 만큼 순전히 맑은 기(氣)를 지니는 마음의 정지상(靜止相)이다. 영활은 천지의 온갖 사물을 모두 다 이루어 낼 만큼 완전히 갖춘 리(理)를 지니는 마음의 구비상(具備相)이다.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순전히 맑은 기와 완전히 갖춘 리의 총화이기 때문에 허령하고, 허령하기 때문에 천지의 온갖 사물을 다가오는 대로 낱낱 남김이 없이 모두 지각하는 기능을 가진다. 순전히 맑은 기는 지각하는 바탕을 이루고, 완전히 갖춘 리는 지각하는 까닭을 이룬다.

지각은 크게 형기(形氣)의 욕구를 좇아서 나오는 것과 성명(性命)의 욕구를 좇아서 나오는 것이 있으니, 전자는 신상의 이해를 파악하는 바로서 인심(人心)을 이루고, 후자는 사물의 의리를 파악하는 바로서 도심(道心)을 이룬다. 그러나 우리의 성명이 반드시 형기에 있듯이, 성명의 욕구도 언제나 형기의 욕구를 타고 나온다. 따라서 사물의 의리를 파악하는 지각과 신상의 이해를 파악하는 지각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지각은 사물의 왕래를 맨 처음 응접하고 이로써 모든 감정(感情)과 사려를 촉발하는 데서 고유한 영역을 가진다. 그러나 지각만 가지고는 생리(生理)를 실현할 수 없으니, 감정의 기력(氣力)과 사려의 결단(決斷)이 있어야 실천이 따른다. 감정은 지각을 일으킨 마음이 이로 말미암아 동정(動靜)을 나누어 가지는 가운데 맨 처음 생긴다. 사려는 감정을 일으킨 마음이 이로 말미암아 정처(定處)와 향방(向方)을 찾아서 이르는 가운데 생긴다.

지각은 마음의 발현과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다. 지각이 파악하는 바의 사물은 생리의 적부를 요구하는 마음의 욕구를 좇아서 저절로 우리의 눈앞에 놓이고, 사물이 촉발하는 바의 감정은 사물의 선악(善惡)과 미추(美醜) 및 마음의 호오(好惡)를 좇아서 저절로 우리의 가슴에 맺힌다. 사물과 감정은 감수(感受)와 응수(應酬)의 관계다. 마음은 이러한 감응(感應)을 통틀어 주재하는 본체다.

퇴계는 지각에 따른 마음의 감응을 사람이 삼재(三才)의 하나에 들어가 중정(中正)의 준칙(準則)을 수립하는 이유로 들었다. 감응은 만물을 낳는

천지의 마음이 하나의 음양(陰陽)을 거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지의 일부인 사람의 마음이 또한 하나의 음양을 거둬하는 데서 유래하는 현상이다. 감응이 없으면 만물이 없으며, 이것은 곧 천지와 사람이 만사로 더불어 모두 없음을 뜻한다. 허물며 세속의 이해를 떠나서 오로지 미적 만족을 위하는 우리의 심미 활동은 더욱 예외가 아니다.

우리의 미적 만족은 지각을 통해서 느끼는 경계와 의향(意向)을 좇아서 바라는 경계가 완전한 일치로 이루는 곳에서 생긴다. 이러한 경지는 의식에 수반된 지각과 감정과 의향이 일정한 사물의 경계를 기초로 통일된 자연적 집중의 결과다. 우리가 특히 미적 만족을 얻는 감응은 이처럼 밖으로 마주한 사물과 안으로 가지는 의향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들어맞아 흐뭇한 즐거움을 더하는 경우다. 여기에 이르는 관건은 의향이 우리의 지각을 제약하는 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의향이 우리의 지각을 제약하는 양상은 기대(期待)와 유의(留意)로 크게 나뉜다. 기대와 유의는 의향이 사적 이해나 사적 호오에 이끌려 한낱 사의(私意)에 떨어진 결과다. 사의가 지각을 가리면, 사물의 선악과 미추가 사물의 형식과 실질에 구비된 자연의 이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아의 사적 이해나 사적 호오의 적부에서 나온다. 따라서 사의가 없어야 사물과 자아가 하나로 모이는 바의 심미 지각을 얻는다. 이것은 사물의 형식과 실질을 그 자체로 즐기는 심미 활동의 가장 중요한 전제다.

우리의 지각이 아니면 어떠한 사물도 자체의 형식과 실질을 드러내지 못한다. 요컨대 모든 물성(物性)의 드러남은 또한 인성(人性)의 깨달음을 뜻한다. 인성은 반드시 만물을 화육할 만한 본체의 명덕(明德)을 지니며, 명덕은 반드시 인정(人情)과 물리(物理)에 통달할 만한 명지(明知)를 지닌다. 명지는 곧 마음의 지각하는 곳이다. 우리의 심미 지각은 이러한 명지의 가장 정예로운 기능의 하나다. 사람의 마음은 명지를 지니는 까닭에 사물의 선악과 미추를 철저히 비추어 깨달을 수 있으니, 선(善)과 미(美)의 지극한 것을 누리는 즐거움은 오직 사람이 가진다.

우리의 마음은 비록 우리의 몸에서 그 중심을 얻지만, 그것은 결코 한 사람의 몸에 갇혀 있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리와 그 기가 천지와 만물로 더불어 하나다. 그것은 물아(物我)가 없고 분단(分段)이 없는 그 리와 그 기이다. 우리의 지각은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하는

까닭에 어떠한 사물이 되었든 그것을 접촉하는 순간에 곧장 그 본질을 느껴서 알아차리고 깨닫는 바의 직관을 판단력의 핵심으로 가진다. 그리고 이것은, 퇴계가 거듭 역설한 바지만, 사물의 법칙과 마음의 법칙이 본디 하나인 까닭에 가능한 것이다.

퇴계가 그의 만년에 가장 흐뭇하게 여기던 일상은 산수(山水)와 천석(泉石)에 나아가 홀로 자연미(自然美)를 찾아 즐기는 자리에 있었다. 이른바 자연미는 자연 사물에 드러난 자연 사물의 아름다움을 일컫는 말이다. 자연미는 자연 사물의 형식과 실질이 가지는 객관적 속성의 하나다. 그러나 중대한 조건이 따른다. 우리의 지각이 대상으로 가지는 것과 자연 사물의 실체가 하나로 모이는 계기를 전제로 한 사람의 몸이 완전히 극복된 경우에 한해서, 자연미는 그제야 비로소 자연 사물의 실제에 근거하는 바의 객관적 형식을 얻는다.

참 고 문 헌

- 金幹, 『厚齋先生集』: 『韓國文集叢刊』 제155집. 서울:民族文化推進會, 1996.
- 蘇軾, 『東坡志林』: 『文淵閣四庫全書』 제863책.臺北:商務印書館, 1985.
- 申益愧, 『克齋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제185집. 서울:民族文化推進會, 1998.
- 楊時, 『二程粹言』: 『文淵閣四庫全書』 제698책.臺北:商務印書館, 1985.
- 柳成龍, 『退溪先生年譜』: 『韓國文集叢刊』 제31집. 서울:民族文化推進會, 1988.
- 李德弘, 『良齋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제32집. 서울:民族文化推進會, 1988.
- 李珣, 『栗谷先生全書』: 『韓國文集叢刊』 제44집. 서울:民族文化推進會, 1988.
- 李滉, 『退溪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제31집. 서울:民族文化推進會, 1988.
- 李滉, 『退溪先生全書遺集·內篇』: 『陶山全書』 제4책. 서울:退溪學研究院, 1988.
- 鄭惟一, 『文峯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제42집. 서울:民族文化推進會, 1988.
- 程顥, 『二程文集·明道文集』: 『文淵閣四庫全書』 제1345책.臺北:商務印書館, 1986.
- 朱熹, 『孟子集註大全』: 『文淵閣四庫全書』 제205책.臺北:商務印書館, 1984.
- 朱熹, 『伊洛淵源錄』: 『文淵閣四庫全書』 제448책.臺北:商務印書館, 1984.
- 朱熹, 『二程遺書』: 『文淵閣四庫全書』 제698책.臺北:商務印書館, 1985.
- 朱熹, 『朱子語類』: 『文淵閣四庫全書』 제700-702책.臺北:商務印書館, 1985.
- 朱熹, 『中庸章句大全』: 『文淵閣四庫全書』 제205책.臺北:商務印書館, 1984.
- 朱熹, 『晦庵集』: 『文淵閣四庫全書』 제1143-1146책.臺北:商務印書館, 1985.
- 權五鳳, 『退溪의 燕居와 思想形成』. 포항:포항공과대학, 1989.
- 김우형, 『이황의 마음 이론에서 ‘지각(知覺)’과 ‘의(意)’』.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2호, 2005, 187-208쪽.
- 김태환, 『퇴계의 체용(體用) 제1의와 리(理)의 적감(寂感)』. 『철학논집』 제18집, 2009, 185-221쪽.
- 蒙培元, 『論李退溪的情感哲學』. 『退溪學報』 제58집, 1988, 83-92쪽.
- 문석운, 『退溪集 所載 栗谷 李珣 問目 자료에 관하여』. 『退溪學報』 제122집, 2007, 127-131쪽.
- 문석운, 『退溪의 ‘未發’論』. 『退溪學報』 제114집, 2003, 1-44쪽.
- 徐遠和, 『略論李退溪의 直覺觀』. 『退溪學報』 제62집, 1989, 115-123쪽.
- 李承煥, 『退溪 未發說 釐清』. 『退溪學報』 제116집, 2004, 67-106쪽.
- 李愛熙, 『退溪哲學에 있어서 知의 問題』. 『退溪學報』 제74집, 1992, 7-19쪽.

국 문 요 약

퇴계의 견해에 있어서, 지각(知覺)은 이른바 허령(虛靈)을 체(體)로 하는 마음의 용(用)으로서 단순히 감각(感覺)에 그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리(義理)의 당연(當然)과 소연(所然)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에 속한다. 사람의 마음은 천지의 온갖 사물을 모두 다 비추어 낼 만큼 순전히 맑은 기(氣)와 천지의 온갖 사물을 모두 다 이루어 낼 만큼 완전히 갖춘 리(理)의 총화이기 때문에 허령하고, 허령하기 때문에 천지의 온갖 사물을 다가오는 대로 낱낱 남김이 없이 모두 지각하는 기능을 가진다. 순전히 맑은 기는 지각하는 바탕이고, 완전히 갖춘 리는 지각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지각은 감각적 현현(顯現)을 얻는 찰나와 동시에 곧장 사물의 법칙을 파악하는 데까지 이르는 바의 직관(直觀)을 판단력의 핵심으로 가진다. 직관이 우리의 지각에 배속되어 있는 까닭에, 우리는 현실미의 주요 범주를 이루는 온갖 사물의 미적 규율을 사려(思慮)에 의거하지 않고도 이미 지각의 단계에서 이내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퇴계의 지각 이론과 문학 작품을 통하여 지각의 본질과 대상 및 지각과 미적 인식의 문제를 고찰해 보았다.

투고일 2010. 1. 8.

수정일 2010. 2. 22.

게재 확정일 2010. 2. 28.

주제어(keyword) 퇴계(Toegye), 지각(perception), 직관(intuition), 심미 지각(aesthetic intuition), 자연미(beauties of nature)